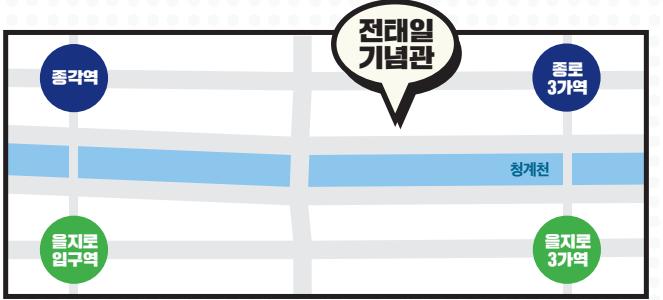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 10:00 ~ 18:00 | 동절기(11월~2월) : 10:00 ~ 17:30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관람료 무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1호선 종로3가역 15번 출구, 2호선 을지로3가 1, 2번 출구 (청계천 방향으로 도보 10분 거리)
※ 주차가 불가하오니 기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문의 02-318-0903~4

홈페이지 <https://www.taeil.org>

스탬프 찍으며 만나는 전태일 이야기!

인권/평화/사람을 담은 주제의 작은박물관을 돌아보고
전시도 즐기고, 기념품도 받아가세요!

1. QR코드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스템프북을 드려요
 2. 8개 박물관을 투어하면서 스템프를 모아주세요.

3. 마지막 맹금 락풀원에서 환료 인증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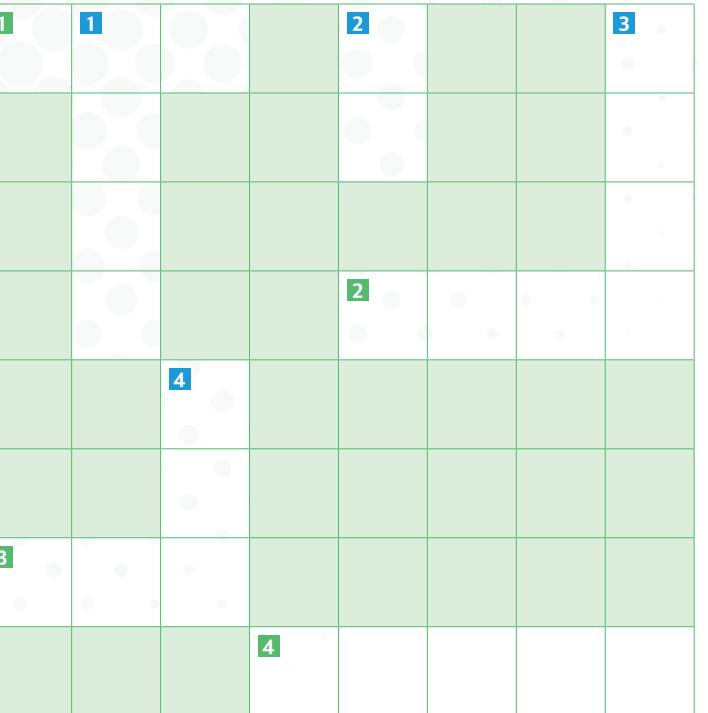
한여기관

구현대사기념관 / 기그태기념드서관 / 민이학 토이이지 / 바조천센터

시미지역사박물관 / 아름다운천년 전태일기념관 / 이하연기념관 / 전재관여선이궁박물관



태일이네 날말퀴즈



가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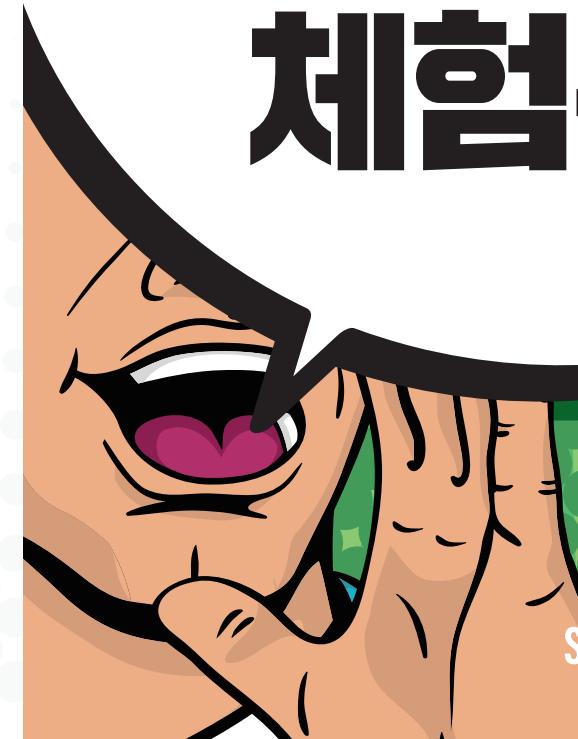
- 1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를 외치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 2 태일이가 일한 곳으로 옷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좁은 공간에 다행방을 덧대어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열악한 공간이었어요.
 - 3 태일이가 1970년 9월에 만든 투쟁 단체로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의 재단사들이 함께 만든 모임이에요.
 - 4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법으로 태일이는 바보회, 삼동회를 만들어 노동환경을 바꾸려고 행동했어요.

세로 열쇠

- 태일이가 설립하진 못했지만,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운영하고 싶어 했던 의류공장이에요.
 - 전태일은 수기에서 “또 굴려야 할 ○○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라는 글을 통해 사람들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기를 당부했어요.
 - 서울 동대문 청계천 주변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 상가로 태일이가 다녔던 봉제공장이었던 곳이에요.
 - 태일이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로 되찾기 위해 행동하고자 처음으로 만든 재단사 모임이에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노동인권의 놀이터!

달려라! 노동인권 체험관



SEOUL M! SOUL



고용노동부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 전태일의 수기 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전태일이 “힘에 겨워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간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노동인권의 덩이를 함께 굴려가고자 합니다.

덩이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사람 중심의 일터, 연대와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은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나와 이웃, 모두와 함께 덩이를 굴리며
노동·인권·청년의 내일을 위한 실천을 이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덩이를 굴려주세요!

시민갤러리 / 다목적홀(공연장) 최대 60석 / 교육실 25석 / 세미나실 15석 / 작은 회의실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관문의 02-2273-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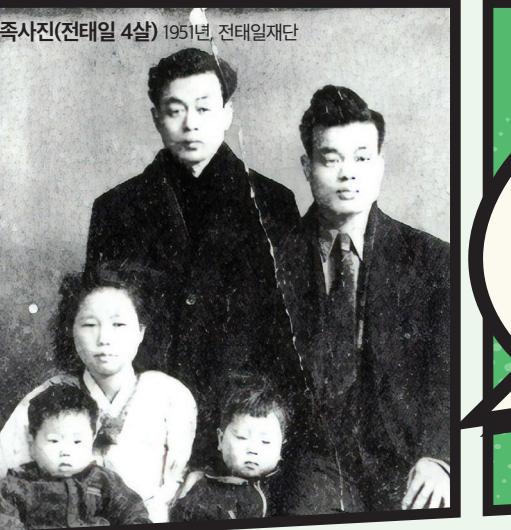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 전태일의 수기 中

상설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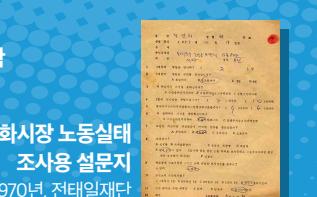
전태일의 실천

태일이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만들었어요. 바보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해체되었지만 태일이는 다시 삼동회를 결성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평화시장 노동자 대상 노동환경 실태 조사 후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태일이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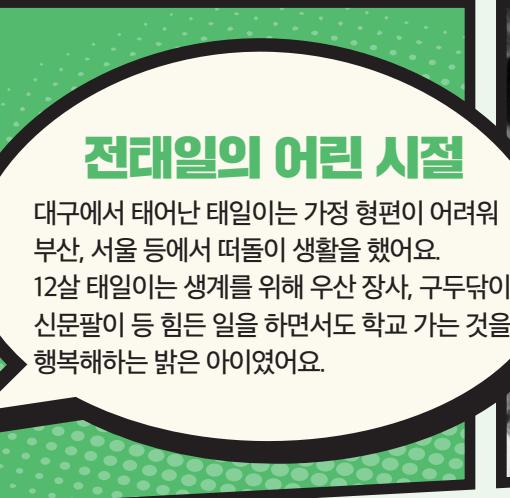
* 노동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바보같이 시장에게 당하기만 했던 것을 탄식하며 정한 명칭



전태일 바보회 명함
1969년, 전태일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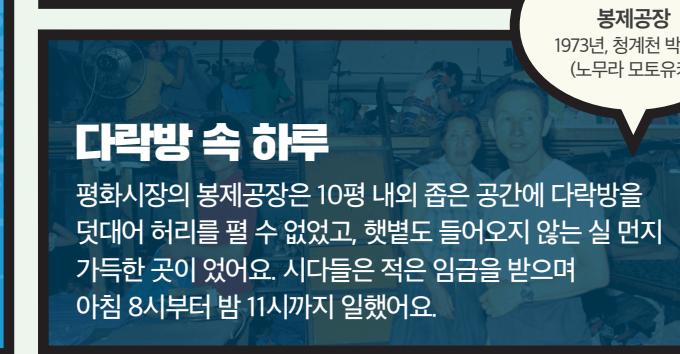


평화시장 노동실태
조사용 설문지
1970년, 전태일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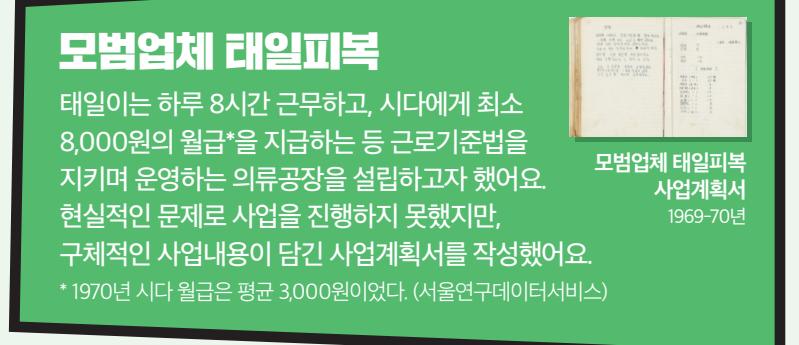
전태일의 어린 시절

대구에서 태어난 태일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산, 서울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12살 태일이는 생계를 위해 우산 장사,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학교 가는 것을 행복해하는 밝은 아이였어요.



다락방 속 하루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은 10평 내외 좁은 공간에 다락방을 덧대어 하리를 펼 수 없었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실 먼지 가득한 곳이었어요. 시다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며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모범업체 태일피복

태일이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다에게 최소 8,000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운영하는 의류공장을 설립하고자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

* 1970년 시다 월급은 평균 3,000원이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모범업체 태일피복
사업계획서
1969-70년

전태일의 꿈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은 전태일의 친구와 어머니는 평화 시장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창립했어요. 이후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투쟁했고, 오늘날의 노동환경을 만들어 냈어요.



모범업체 태일피복
사업계획서
1969-70년

*1960~70년대 봉제공장에서는 일을 보조하는 말단 직원을 일본어인 시다로 불렀다. 시다는 대부분 어린 여성노동자로 다리미질과 실밥 뜯는 일, 실과 단추를 나르는 일부터 사업주나 미싱사, 재단사의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다.

전태일의 눈

17살 태일이는 ‘시다’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해야 했지요. 태일이는 동료들이 지친 얼굴로 일하면서도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다들의 밀린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태일이는 자기 집까지 3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날도 많았답니다.

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직했을 때 동료 시다·미싱보조들과 함께

1964년, 전태일평전